

낙안민속문화 축제

28일부터 민속마을서

제13회 순천낙안민속문화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순천시 낙안면 낙악읍성 민속마을에서 펼쳐진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통과 맛, 맛이 어우러진 고향에서의 주역'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됐던 무대행사가 축소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축제 기간 마당극 '춘향전', 수문장 교대식, 해룡 용줄다리기, 풀바공연과 함께 안동하회 탈춤, 안성 남사당패 놀이 등이 공연되고 빙그레들과 생활돌기, 소원지 쓰기, 달집 태우기, 전연 염색, 장승깍기, 들뜰들기, 짚신 신고 생활돌기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순천낙안민속마을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동참하는 축제를 목표로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주민 식수원 흙탕물 줄줄

순천 복호마을, 공사 중단·주택 균열 보상 등 요구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계곡 하천에 정화시설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토석을 매립, 흙탕물을 흘려보내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순천시 홍전면 비촌리 복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D건설은 국책사업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계곡 하천에 정화시설로 없이 토사를 매립해 계곡이 흙탕물로 변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곳 계곡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복호 마을 주민 이필수(62)씨는 "주민들의 식수원인 계곡 하천에 흙탕물이 안내려 가도록 정화시설을 해야하는데도 현장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다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나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계곡 물은 구례군민들의 식수원인 섬진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섬진강 오염까지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주택 30여호에 균열이 생기고 문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면 이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복호 마을 주민 이필수(62)씨는 "주민들의 식수원인 계곡 하천에 흙탕물이 안내려 가도록 정화시설을 해야하는데도 현장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다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나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매립해 식수로 사용하는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복호마을 공사현장.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다)고 말했다.

임만구(38·주민 대책위원장)씨는 "무리한 발파로 주택에 균열이 심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건설사가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발파 소음을 최소화하고 계곡물을 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는 용역기관에 의뢰해 적정성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힘모아 경쟁력 키우자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내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모색에 나선다.

광양만권 혁신기업협의회는 최근 순천로열호텔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전남테크노파크, 순천대, 전남신재기자원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과 업무 제휴 조인식을

를 구축, 각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기술평가 및 보증,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남 테크노파크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간 정보공유,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회는 조만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기술개발 클러스터를 구성,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회원 대상 업체는 광양만권에 소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우량 중소기업, 수출 유망 중소 기업 등 147 개 업체로 이날 현재 65개 업체가 가입을 신청했다.

협의회 이범선 사무총장은 "기존 기업간 협의회나 협회가 친목위주의 모임이었다면 광양만권 혁신기업협의회는 산·학·관·연의 협동체제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광양만권내 벤처·중기 혁신기업 협의회 구성

기술·판로개척 등 협력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 기업들의 자금, 기술, 경영, 홍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연계 및 협력사업을 상호협력, 정보교류를 통한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업무제휴를 한 순천대 및 전남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와 기술개발 네트워크

를 구축, 각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기술평가 및 보증,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남 테크노파크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간 정보공유,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회는 조만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기술개발 클러스터를 구성,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회원 대상 업체는 광양만권에 소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우량 중소기업, 수출 유망 중소 기업 등 147 개 업체로 이날 현재 65개 업체가 가입을 신청했다.

협의회 이범선 사무총장은 "기존 기업간 협의회나 협회가 친목위주의 모임이었다면 광양만권 혁신기업협의회는 산·학·관·연의 협동체제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3월 광양항 처리물량 개항 아래 최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3일 "지난 달 광양항 물량이 전년대비 43% 증가한 12만TEU, 환적 물량은 39만7천TEU를 처리해 6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대항통운은 5만6천TEU로 단일 터미널로는 처음으로 5만TEU를 돌파했다.

수출입 화물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만TEU, 환적 물량은 39만7천TEU를 처리해 6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대항통운은 5만6천TEU로 단일 터미널로는 처음으로 5만TEU를 돌파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70살 수양벚꽃 만개
매화마을로 널리 알려진 광양시 디암초등학교 교정에 수령 70여년이 된 수양벚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맑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봄날과 잘 어울리고 있다. 수양벚꽃 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지녀 꽃과 수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수목으로 일명 능수벚나무, 처진 개벚나무로도 불린다.
<div data-bbox="4